



밥 먹다가, 울컥

저자/박찬일 출판사 / 웅진지식하우스

<책소개> 음식과 사람, 인생에 대한 저자의 신랄한 시선이 담긴 에세이

잊혀져 가는 기억, 먹다가 문득 생각난 얼굴, 그리고 밥상에 얹힌 삶의 이야기들이 소설처럼 다정하게 펼쳐지는 이 책은 음식 에세이를 좋아하는 분들뿐 아니라,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글을 찾는 분들에게도 꼭 어울리는 책





아픔을 돌보지 않는 너에게

저자/황중환 출판사 / 마음의 숲

<책소개> 파울로 코엘료의 영감을 자극, 단순한 그림이 한 편의 시가 되다
짧은 글과 간결한 그림으로 현대인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따뜻하게
어루만지는 그림 에세이



장성군립도서관



아무튼, 여름

저자/김신희 출판사 / 제철소

<책소개> 여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작가가 여름에게 보내는
러브레터 같은 에세이

여름이라는 계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, 일상의 감정과 결핍을
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이야기예요. 여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,
누구나 한 번쯤 공감할 만한 감정이 담겨 있음



장성군립도서관



첫 여름 완주

저자/김금희 출판사 / 무제

<책소개> 상실과 회복, 그리고 다시 실아가는 용기를 그린 감성적인 장편소설

각자의 상처를 안고 실아가는 사람들-한여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, 조금씩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여정을 담음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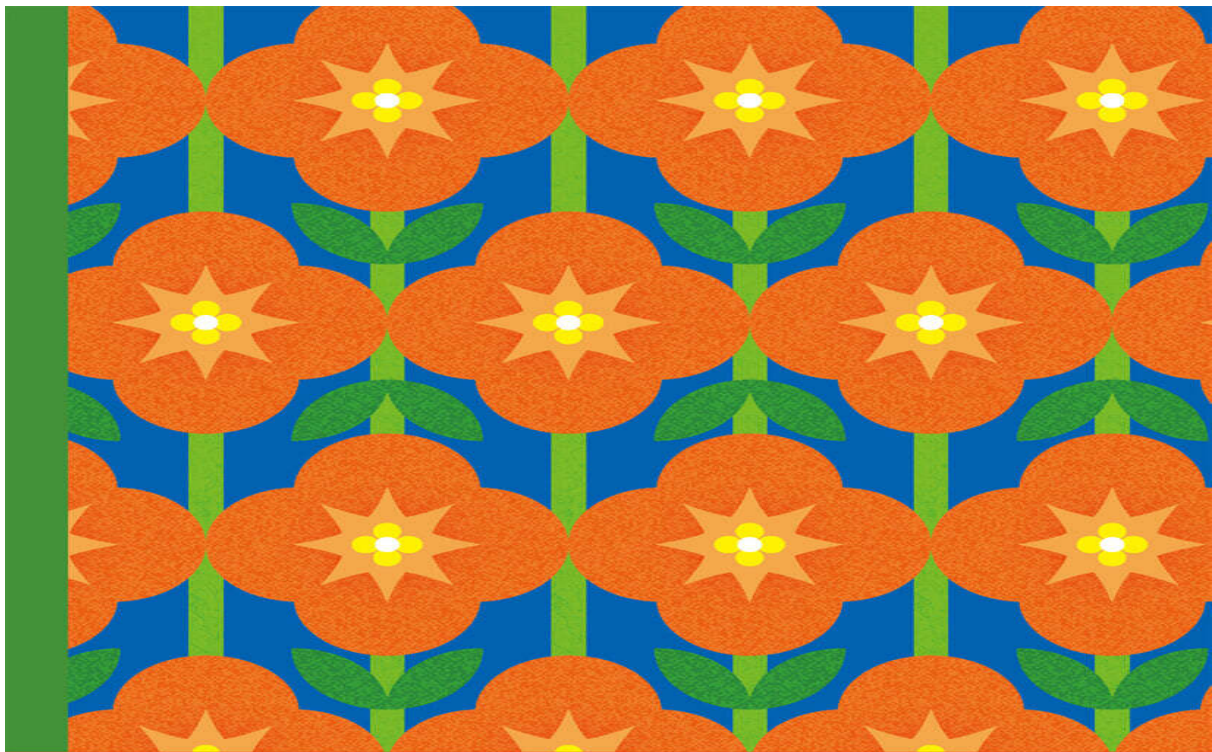
마침내, 안녕

저자/유월 출판사 / 서사원

<책소개> 임상심리사 출신 작가 유월이 쓴 감성 소설

상실과 회복, 그리고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있음.

마음을 다독이고 싶은 여름밤에 읽기 딱 좋은 소설



송은이, 최강희, 황보름 작가 강력 추천!
“좋아하는 책의 마지막 장을 읽었으니
나는 이제 어찌나...!”

컨텐츠랩 비보가 선택한 첫 장편소설
드라마 제작 확정!

유월
지음

안녕

마침내,



장성군립도서관



미드나잇, 라이브러리

저자/매트 헤이그 출판사 / 인플루엔셜

<책소개> 삶과 죽음 사이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감성 판타지 소설
“삶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아가는 것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,
후회와 선택, 존재의 의미에 대해 따뜻하게 성찰하게 해주는
작품으로 여름밤에 딱 어울리는 책



장성군립도서관